

'무늬' 벗고 참불자 되세요



불자는 계를 받아 지니고 신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진은 회원들의 올바른 신행관을 기르기 위해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안양시청불자회원들의 모습.

을 점검하고 인도해 줄 사찰과 스님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불자라 하기 어렵다. 믿음의 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신행이고 이를 실천하는 공간이 사찰이다. 또한 사람은 삼보에 귀의하는 의지 차이와 법을 구하는 귀의차다. 원찰(原刹)을 갖고 정기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찰은 불자에게 신행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다. 공부하는 이에게 스승이 있어야 하듯이 불자에게는 신행지도를 받을 사찰과

수계는 불자의 첫째 요건 원찰 정하고 신행활동 동참 교육 받고 바른 믿음 키워야

스님이 있어야 한다. 정해진 원찰 없이 이질적 접점을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도의무 다하라

신도는 승단을 구성하는 기본요건. 여기에는 신도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불교를 믿는 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며, 불자는 기계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가운데 소속 사찰이나 종단에 신도의 무늬를 납부하는 일은 신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찰과 종단에 대한 소속의지와 참여의지를 키우는

밀거름이 된다. 불자라면 신도의무무를 내는 일을 비롯해 신도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기본교육 받아라

올바른 신심을 갖고 신행활동을 펼치는 일은 신도의 기본요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기본교육은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사찰에 신자접수를 하게 되면 기본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시스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뒤 계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소규모 사찰일 경우에는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기본교육을 실시하므로 수계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입문하지 않으면 불교를 취미로 생각하거나 인의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타행 실천하라

자리아타(自利利他)를 실천하는 일은 불자들의 의무다. 따라서 불자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타행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저 알음알이에 머문다면 참다운 불자라 말하기 어렵다. 이타행이 아랍로 불교의 근본사상이기 때문이다.

이타행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으로 나타날 때 바른 믿음을 가진 불자라 할 수 있다.

가평 백련사 주지 승인 스님은 "어찌다가 가고 싶은 때나 절에 간다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이를 불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원찰을 갖고 기본교육과 계를 받아 바른 믿음을 키우고 실천하는 이아랍로 참불자"라고 말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우리단체 이사람

김주호

前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회장



30여 의료기관 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를 이끌어온 김주호 前 회장(국립서울정신병원 간호과장).

2000년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창립때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회장을 맡아온 그는 가입기관 확대, 의료기관 불자회 창립, 연명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5년 동안 김 前 회장의 화두는 '병불련 활성화'였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꾸려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병불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한계를 느낀 적이 많았지만, 힘 닿는만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활동했어요. 대단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재직질한거지요."

39년을 의료인불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김 前 회장은 1966년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공주결핵병원을 첫 근무지로 발령받은 이후 충남의료원을 거쳐 1979년부터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일해 왔다.

며느리, 아내, 엄마의 역할을 해야 했던 가정생활과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야 했던 직장생활에 매여 있다보니 종교생활을 제대로 하

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그러면서도 "퇴근후 가정일에 매달리다보니 절에 자주 갈 수가 없으니 직장에서라도 기도시간을 갖고 정진하자"던 1992년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를 창립할 당시의 초발심을 가슴에 담고 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만나는 회원들이 너무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병불련과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가 앞으로 부처님법에 따라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신행모임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공직(空寂)이란 명을 갖고 있는 김 前 회장은 친가의 어머니가 다녔던 서울 영화사를 원찰로 삼고 있다. 시간이 많아지면 오랜 직장생활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마음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 김주호 前 회장의 작은 바람이다.

"어렸을때 햄프식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어머니의 정성이 저를 불교로 인도하거나 다름 없어요. 간호학교 시절 개신교를 믿던 친구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자고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은 것도 그 기억 때문이지요. 지금은 부처님 법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 뿐이에요."

박봉영 기자

지난 5년 '병불련 활성화' 앞장

남은 시간 마음공부를 하도록

30여 의료기관 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를 이끌어온 김주호 前 회장(국립서울정신병원 간호과장).

2000년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창립때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회장을 맡아온 그는 가입기관 확대, 의료기관 불자회 창립, 연명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5년 동안 김 前 회장의 화두는 '병불련 활성화'였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꾸려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병불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한계를 느낀 적이 많았지만, 힘 닿는만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활동했어요. 대단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재직질한거지요."

39년을 의료인불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김 前 회장은 1966년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공주결핵병원을 첫 근무지로 발령받은 이후 충남의료원을 거쳐 1979년부터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일해 왔다.

며느리, 아내, 엄마의 역할을 해야 했던 가정생활과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야 했던 직장생활에 매여 있다보니 종교생활을 제대로 하

참 불자의 요건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설문결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은 3.5%에 불과했다. 1년에 한두번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불자라 할 수 있을까?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만난 A씨. 정기적으로 다니는 원찰이 없고 수계도 받지 않았지만, A씨는 마음 속으로 늘 사찰과 불교를 좋아한다. A씨는 과연 불자일까 아닐까. 답은 '무늬만 불자'다. 그렇다면 참불자의 요건은 무엇일까. 수계, 정기법회 참석 등이 불자의 기본요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계-지계 필수

오계를 받고 법명을 수지하는 일은 불자가 갖춰야 할 첫째 요건으로 꼽힌다. 수계는 불·법·승 삼보를 진실로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이요 서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를 받는 시점이야말로 불교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지계다. 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계의 참 뜻이기 때문이다.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계를 받아 지니고 지키는 일야말로 불자의 첫째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원찰-신행의 뿌리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행



국회 정각회는 6월 30일 서울 관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국회 정각회 창립1주년 조찬법회

부회장에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제17대 국회 정각회(회장 이용희)는 창립 1주년을 맞아 6월 30일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에서 조찬법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박세일 前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부회장에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다.

기념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은 "정각회원들이 한국정치에 활기를 불어넣고 정치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용희(열린우리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이 땅에 부처님의 뜻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1년전 창립한 정각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용희 회장과 안종준 간사장, 이상배 한나라당불자회장, 이영호(열린우리당), 김정부, 김정훈, 김학송, 이계경, 이계진, 이인기, 장운석, 정갑윤, 주호영(이상 한나라당) 의원, 한화갑 민주당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의료·신행 모두 힘써주길...

고대의료원 불자회 결성, 7일 안양병원서 창립법회

고려대 부속병원인 고대의료원에도 불자회가 생긴다. 이번 고대의료원 불자회 창립은 의료기관 불자회 결성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고대의료원불자회는 7월 7일 오후 7시 안양병원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고대의료원불자회에는 고대의료원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불자 7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불자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김우주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초대회장으로 내정됐다.

고대의료원불자회는 앞으로 회원 확대에 힘쓰는 한편, 의료원내 법당 개설, 정기법회 봉행, 의료봉사, 성지순례 등의 활동을 펼친다. 특히 회원들과 불교신자 환자·보호자들이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병불련 회장에 이원철 씨



30여 의료기관 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 불자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새 회장에 이원철(사진) 동국의료원 일산분교병원 한방병원이장 내정됐다.

병불련은 6월 28일 동대부속여중고 정각원에서 김주호 회장의 이임법회를 열었다.

김주호 회장은 "의료인불자들의 신행활동을 권장하고 도울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힘써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계 잘 지키겠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6월 25-26일 양산 통도사에서 제5차 합동수계법회를 열었다. 법회에 참석한 54개 기관 8백여 공무원불자들은 일주문에서 금강계단까지 3보1배를 한 뒤 5계를 수지했다. 공무원불자들이 참회인연을 외며 연비하는 모습.



최첨단 Thunderstorm 원리로 세계시장을 원전 석권한 - 리빙에어



EPA
Est. Reg. No.
065975-1N-001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꿈꾸십니까?

無 필터 無 병균 無 악취 첨단기술방식 공기청정기 Living Air



Breeze AT

- 공기청정기부분 미국 제1의 매출실적
- 소독기능 장치 / 리모콘 기능
- 소음이 거의 없음
- 오존발생 일시 제거기능
- 5평에서 70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XL-15Classic

- 제작 20년의 기술축적
-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사용
-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
- 높이 30cm, 폭20cm, 무게2kg으로 자유롭게 이동 설치
-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번거롭게 사용



Fresh Air

환과 정화를 위한 정확한 공간의 면적을 표시해 주며, 조정 가능한 살균방식에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SynAirGS 시스템은 광촉매 기술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더욱 효과적인 에코테크 과정을 촉진합니다.

◆ 리빙에어의 다양한 효능◆

- ▶ 새집증후군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분해
- ▶ 환경오염으로 오는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 등의 질병예방
- ▶ 애완동물의 털, 먼지, 음식냄새, 담배냄새 제거 탁월
- ▶ 곰팡이, 박테리아 살균 및 습기로 인한 악취제거
- ▶ 유해냄새 및 담배연기로 인한 두통, 만성피로감에서 탈피

미국 EcoQuest사에서 제작된 LivingAir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있는 세계적인 공기 청정기 시스템으로서 최첨단 신기술(Thunderstorm : 천둥.번개+RCI : Radiant Catalytic Ionization : 광촉매방식)의 신산화작용(AOP)으로 악취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살균 효과로 언제나 숲속에서 있는듯한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 오투에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 TEL : 02)2055-0202 ■ FAX : 02)2055-0279

www.o2air.net